오늘의 게시판

제 11회 여수 생선요리 향토음식 큰잔치

오후 6시 여수시 종화동 하멜 해양공원

행사

〈2일〉

▲광주시 남구 압촌동 메주·곡성군 메론 품질 특성 연구결과 최종보고회=오전 10시 광주시 남구청 상황실. 전남대 경영연구소 이용훈 연구원이 '곡성 메론·압촌 메주에 대한 지리적 특성 및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발표.

▲제 2회 장애인 한마음 재활증진대회=오전 10시30분 담양군 추성경기장 특설무대.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1천500여명 참석 예정.

▲제 4회 광주직업교육박람회=오후 2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제 509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남상도 한마음공동체 대표가 '문화전략을 통한 농촌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11회 여수 생선요리 향토음식 큰잔치=오후 6시 여수시 종화동 하멜 해양공원. 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낙지수제비 2006 나누기' '수산물생산지 해상탐방'등 체험행사·공연 등. 5일까지.

▲제 4회 대흥사 단풍축제=오후 3시 해남군 대흥사 특설무대. 고구마깎기 행사·단풍체험 걷기대회 등. 4일까지.

〈3일〉

▲제 15회 전남도지사배 생활체육 전국바다낚시대회=새벽 5시 장흥군 회진면 회진항 일원. 전국에서 300여명이 참여. 1~3등상금은 500만원·200만원·100만원.

▲제 6회 유자골 한우경진대회=오전 10시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고흥가축시장. 지역 농가에서 출품한 한우 63두를 대상으로, 송아지 암소·송아지 숫소·암소 부문으로 나눠 품평회 실시.

▲제 6회 광주시 북구 여성 화합한마당=오전 10시30분 전남대 실내체육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주최 중소기업 혁신포럼=오전 11시30분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윤종용(삼성전자) 부회장이 '글로벌 경쟁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강연.

▲전남대 통합 1주년 기념 제 3차 남해안 발전 심포지엄=오후 2시 전남대 여수캠퍼스 국제회의동. '국토균형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 남해안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성호 부산대 교수는 '남해안 개발의 제도적 측면', 이정록 전남대 교수가 '여수세계박람회와 남해안 발전'에 대해 주제 발표.

▲제 129회 강진다산강좌=오후 3시 강진군 문화회관. 산악인 허영호씨가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강연.

공연

▲전남대 예술대 음악학과 제 22회 정기연주회=2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음악회=2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제 33회 목요 열린 국악한마당=2일(목) 오후 7시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

▲스쿨피아 싱어즈 제 13회 정기연주회=3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수시공연 '가곡과 아리아의 밤'=3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전시

▲판화그룹 ALL 초대전=8일까지 지산갤러리.

▲고광입 개인전=17일까지 일곡갤러리.

▲동강대 산업디자인학과전=6일까지 무등갤러리 본관.

▲선묵회전=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농업인의 날 테마전시 '짚신과 삼태기'전=8일까지 일곡도서관 1층 로비.

▲타향속에 삶과예술=14일까지 의재미술관.

뉴스퀴즈

36. 1960~70년대 국내 프로레슬링계를 풍미했던 '박치기왕'이 최근 별세했습니다.

지난 1957년 역도산체육관에 입문하며 레슬링을 시작한 이 사람은 호쾌한 박치기로 거구들을 쓰러트리며 전 국민을 흥분시켰던 인물입니다.

지난 1963년 세계헤비급챔피언에 오르는 등 당시 최고의 인기와 전성기를 누리며 프로레슬링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고흥이 고향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김일 ②역도산 ③이왕표 ④안토니오 이노끼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㊷ 상대에게 코드를 맞춰보자

상대방 중심으로 이해하고 대화해야

사람의 인성이나 가치관, 자기방식 등은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에 거의 굳어진다고 한다.

자신의 관심분야, 전공, 취미, 특기, 독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 메스컴 등에 따라 형성된 자기의 성향이 '자기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다. 남녀간에 상대를 이성으로 바라보는 자기방식은 더욱 다르다. 남녀간의 만남이나 교제에는 평가기준이 상대에 따라 다르고, 또 당시의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기분, 역할에 따라서도 다르다.

남녀간에 누구나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그 평가기준을 알려주지도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주관적인 가치관과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어떤 좋은 책에서도,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도 찾아낼 수가 없다.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어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같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나 그 기준이 오로지 상대에게만 달려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기방식을 잠시 보류하고 상대에게 어필하는 코드로 맞추면 된다.

흔히들 남녀가 이성을 만났을 때 "코드가 달라서"라는 말을 한다. 다른 기준은 어느 정도 내게 부합되는데 코드가 달라서 연인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 버리고 소중한 인연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은 경솔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코드(code)라는 것은 기본적인 취향이나 자기방식에도 내재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먹고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만나서 식사할 때마다 얼큰한 감자탕에 공기밥을 먹자는 남자,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때로는 우아한 파스타집에서 맛과 분위기를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남자가 원해서 의무감에 같이 간 감자탕집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즐겁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식성이나 맛집에 대한 취향의 차이는 코드의 차이를 극복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신문을 보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데이트 전 남자들은 여자들의 관심 분야인 연애, 문화, 스포츠 등의 기사를 주로 읽고 재미있는 영화광고나 드라마 줄거리, 데이트 코스 관련 기사, 뮤지컬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신문을 봐야 한다.

또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도 상대방의 코드를 생각해야 한다. 상대가 평소 얘기하고 평가하는 스타일 대로 가능한 비슷하게 자기연출을 하여 이미지를 변화하는 센스를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자의 그 날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에 따라 남자의 느낌이나 그 날 기분이 좌우될 수 있으며, 여자의 변신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선호하는 쪽으로의 변신은 남자에게 색다른 감동을 주기도 한다.

말하는 습관이나 태도, 대화의 주제 등도 중요하다. 상대의 말을 가능한 많이 진지하게 들어주려 노력하며 서로와 별 상관없는 주위 사람들 보다는 당사자들이나 상대를 중심으로 한 대화의 코드를 염두에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녀가 만나는 것은 연애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방식도 좋으나 남녀간 낯선 상태의 만남에서는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어필하는 코드로 맞추면 연애와, 나아가 결혼이 보이게 된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일(음 9월 12일 乙未)

子 — 36년생 추진하는 일을 한번 더 점검하라. 48년생 꺼진 불도 다시보자. 60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주어라. 72년생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 안정하라. 84년생 속 터지는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31, 35

丑 — 37년생 교통사고를 조심하라. 49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61년생 오늘은 문단속을 잘해야 하리라. 73년생 마음은 우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85년생 순리라면 만사형통이다. 행운의 숫자 : 34, 44

寅 — 38년생 소중한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으니 단속을 잘해야. 50년생 남과 말다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62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 74년생 저녁외출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 40

卯 — 39년생 중심을 잡으면 가사가 평안하리라. 51년생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손해가 줄어든다. 63년생 외적인 미려함보다는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75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수도 있다, 결과는 속상하다. 행운의 숫자 : 01, 38

辰 — 40년생 오전은 불편하나 오후는 평안하리라. 52년생 부부간에 외출하고 다정한 시간을 내라. 64년생 자녀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라. 76년생 형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 해보라. 행운의 숫자 : 05, 20

巳 — 41년생 주변 상황변화에 주의하라. 53년생 친한 사람의 재물을 건드리지 마라. 큰 것을 잃을 것이다. 65년생 춤추고 노래는 하나 마음은 불편하다. 77년생 자기의 위치는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행운의 숫자 : 03, 12

午 — 42년생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리니 성의껏 협조하라. 54년생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처리하고 점검하라. 66년생 분주한 하루이니 아침부터 서두르라. 78년생 舊事가 시비로 나타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36

未 — 43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55년생 먼저 도움을 주면 보답은 그 이상이리라. 67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79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라. 행운의 숫자 : 1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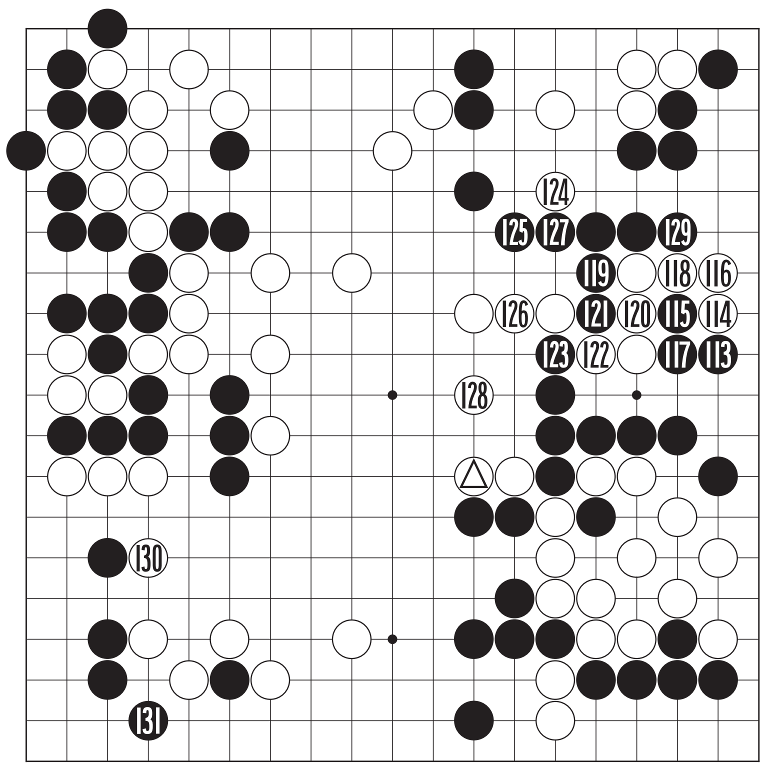
申 — 44년생 간절한 소망은 꼭 이루어진다. 56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으니 활동을 많이 하면 재물이 들어온다. 68년생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 과감하게 진행하며 나가라. 80년생 흐리던 날씨가 개이고 쨍하니 해가 뜨리라. 행운의 숫자 : 08, 37

酉 — 45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마음은 편안하리라. 57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와 즐거우리라. 69년생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81년생 뜻밖의 재난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부단히 살피라. 행운의 숫자 : 10, 45

戌 — 46년생 상대를 힘들게 하면 자신도 힘들다. 58년생 자녀와 많은 대화를 갖고 앞날을 이야기하라. 70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니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82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1, 43

亥 — 47년생 손윗사람의 금전거래는 불량거래가 될 수도 있다. 59년생 양보 받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길일이 된다. 71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83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32, 42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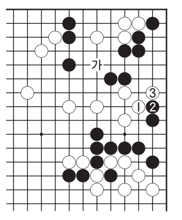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승부수 불발

7보(113~131)

白 유흥주 5단 〈KT전남본부〉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유 5단이 비세를 절감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백 △로 승부수를 던져간 장면이다. 여기가 마지막 시험대로 이 관문만 무사히 넘기면 박 5단의 승리가 결정된다.

박 5단은 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113으로 달려 백의 응수를 살핀다. 아직은 중앙도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 행보다.

이러고 보니 다급한 쪽은 유 5단이다. 공격해야만 된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114로 바짝 조여갔는데 이 수가 115의 통렬한 반발을 불렀다. 백은 116으로 늘어 봤으나 119로부터 123으로 끊겨 거꾸로 백이 몽땅 잡혀 버리는 불상사를 당했다.

114로는 급한 마음을 추스리고 '참고도'처럼 물러서야 했던 것. 이것이라면 '가'쪽의 뒷맛도 있어서 아직은 버틸만 했다. 박 5단은 129까지 철저히 자물쇠를 잠궈 승부를 결정짓는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윤준상 4단, 박영훈 9단 제압

윤준상 4단이 최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50기 국수전 도전자 결정전 3번기 제1국에서 박영훈 9단을 1집 반으로 꺾었다.

윤 4단은 오는 9일 열리는 제2국에서 박영훈 9단을 제압할 경우 국수타이틀 보유자인 이창호 9단과 대회 패권을 다투게 된다.

윤 4단은 이 승리로 박 9단과의 통산 전적에서 2승3패를 기록했다.

윤 4단은 올 후지쓰배 우승자인 박정상 9단, 진시영 2단, 이희성 6단을 잇따라 꺾고 도전자 결정전에 진출했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4천만원(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67>

come and look at this

와서 이것 좀 보게나

A : Marion, **come and look at this.**
B : What is it?
A : This software seems a must for DTP. You know the one I have…
B : You don't have to try to convince me, Nick. You'll get it anyway, right?

A : Marion, 와서 이것 좀 보게나.
B : 뭔데요?
A : 이 소프트웨어는 탁상용 풀판에 필수품 같은데…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B : 당신, 나를 설득시키려 애쓸 필요는 없어요.

come and look = come to look
a must : (구어) 절대 필요한 것 : 필수품
DTP : desktop publishing(소형 출판업)
don't have to~ : ~할 필요가 없다.
anyway : 어쨌든, 하여튼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67>

日本にも '養老院'はあるんですよね

일본에도 '양로원'은 있는 거죠

A : **日本にも '養老院'はあるんですよね。**
B : '養老院'という言葉(ことば)はもう使(つか)われていないんですよ。公的機關としては、'老人(ろうじん)ホ□'の名(な)で制度化(せいどか)されているんです。
A : へえ、そうなんですか。
B : 老人福祉施設(ふくしせつ)としては,養護老人(ようごろうじん)ホ□と特別養護老人ホ□などがあります。

A : 일본에도 '양로원'은 있는 거죠?
B : '양로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용하면 안됩니다. 공식적인 기관으로서는 '노인홈'이란 이름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A : 헤에, 그렇습니까?
B : 노인복지시설로서는 양호노인홈과 특별양호노인홈등이 있습니다.

養老院(ようろういん) : 양로원
公的機關(こうてききかん) : 공적기관
としては : ~으로서는
名(な) : 이름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85>

不是…就是…

…이 아니면 …이다

A : [illegible]
[illegible]
B : [illegible]
[illegible]
A : [illegible]
[illegible]

A : [illegible]
B : [illegible]
A : [illegible]

[illegible]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85>

丹 靑 (단 청)

붉을 단, 푸를 청

단청(丹靑)은 붉은 색과 푸른색 물감으로 집의 벽, 기둥, 천장 등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색깔 외에 여러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렸다.

단청은 궁전(宮殿)이나 대웅전(大雄殿) 대성전(大成殿)등 '전(殿)'자 돌림의 건물과 그 주변의 건물에만 올릴 수 있었다. 궁전은 왕이 사는 곳이고, 대웅전은 석가모니를 모시는 곳이며, 대성전은 공자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곳이다. 이 밖에 예외로는 충신(忠臣) · 효자(孝子) · 열녀(烈女)를 기리는 정려각(旌閭閣)이나 정려문에도 단청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단청은 원래 중국에서 전해져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다. 후기 신라 시대에도 단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물감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 쉽게 구할 수 없었다. 고려시대에는 동식물을 이용해서 물감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였고, 고려의 왕실과 귀족들은 웅장한 건물을 짓고 화려한 단청을 올리곤 하였다. 나아가 고려의 벼슬아치와 궁녀, 승려 등의 특수 신분층은 색깔 있는 옷을 입어 신분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특히 갖가지 색깔로 물들인 비단은 주요 수출 품목이었고, 청자(靑瓷)와 같은 색감(色感)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